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복음기도신문

Gospel Prayer Newspaper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어판 www.gnpnews.net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십자가 사랑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성도를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통계청 발표 “한국 종교 인구 1위는 기독교”

전국 20% 표본 가구 조사 발표

지난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인 인구는 967만 60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844만6000여 명이었던 것에 비해 123만여 명 늘어난 것으로 전체 인구의 19.7%에 달하는 수치이다. 비율로도 2005년의 18.2%에 비해 1.5% 상승했다.

통계청은 10년에 한 번씩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국내 종교인구 분포를 조사하고 있는데 2005년에는 10년 전인 1995년의 850만5000여 명에 비해 15만여 명(19.4%→18.2%)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인구가 국내 종교 인구 중 1위를 차지한 것은 인구주택총조사 이래 처음이다. 2위는 불교로 761만9000여 명, 3위는 389만 명인 천주교가 차지했다. 10년 전 22.8%였던 불교는 15.5%로 현격하게 감소했고, 천주교도 10.8%에서 7.9%로 감소했다.

반면 종교를 갖지 않은 인구는 2005년 47.1%에서 2015년 56.1%

로 절반을 넘어서면서 전체 종교 인구는 상대적으로 43.9%로 줄어 들었다.

이와 관련 한국교회언론회는 20일 논평을 통해 “이번 조사가 전수 조사가 아니라 전국의 20% 표본 가구에 의한 조사라는 한계가 있지만, 기독교로서는 전체 종교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그 숫자와 비율이 늘어난 것은 고무적이다”라고 밝혔다. [GNPNEWS]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하박국 3:2)

기도 | 살아계신 주님.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지는 것만 같은 세상 가운데서 마침내 교회를 통해 나타내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기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부된 교회를 더욱 정결하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복음기도 포토에세이

그들이 드리는 담대한 기도



- 키르기스스탄 오시(Osh)의 솔로몬산 기도굴에서 바라본 일출

제공: WMM

어느새 떠오른 태양이 바위산에 걸리고 어두웠던 이곳 동굴 안을 힘 있게 비추기 시작한다. 이곳은 기도굴이다. 대부분 이슬람교에 속한 이 나라의 사람들은 이 기도굴에서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알라에게 구했을 것이다.

새해 아침이 되면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마음의 소원을 빈다. 그

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한 그 어떠한 기도도 그저 허망할 뿐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아의 캄캄한 동굴 안에서 지금도 빛을 기다리고 있다. 복음의 빛이 영혼의 동굴 안을 비추면 빛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은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깨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담대한 기도를 통해

온 세계 가운데 다시 진리의 빛이 비추일 것이다. 그렇게 영광의 그날은 한 걸음 앞당겨진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요한일서 5:14~15)” [GNPNEWS]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26)

예수만 되는 이유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이같이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모았다.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아니, 왜 예수만 되고, 다른 종교는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다른 종교들은 타 종교를 인정해 주는데, 유독 기독교만 배타적이야!”

막 결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난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그래서 말인데 1년 365일 중의 360일은 당신의 아내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살 테니 단 5일만은 옆집 남자의 아내로 살겠어요.”

당신이 이 여인의 남편이라면, ‘난 배타적이지 않고 이해심이 많아.’라면서 아내의 이런 요구를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인 자신만을 절대적으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남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만약 아내의 그런 요구를 허락해주는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와 같은 사랑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싫은가요? 다른 종교는 안 된다고 하며, 배타적이고 편협해 보이기까지 합니까? 이유

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죽임에 내어 줄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의 신도 당신을 위해 아들을 죽음에 내어준 신은 없습니다. 그만큼 절대적으로 당신을 사랑하진 않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종교는 “모든 종교 다 나름대로 옳으니 어느 것을 믿어도 된다.”라고 합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옆집 남편과 살아도 된다고 허락하는 남편과 같습니다.



“다른 신은 안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요구를 부당하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적 사랑을 주시는 분만이 절대적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또 요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내어 줄 만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그분만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절대적 사랑 앞에 그 분만을 믿기로 결정하십시오. [GNPNEWS]

INSIDE

02 뉴스 | 한국 박원순 서울시장, 동성애 옹호 서울시 자치현장 제정 추진

03 기획 | 중국 기독교인, 장기적출의 희생자로 전락하고 있나?

05 인터뷰 | 이명진 목사 “주님이 인도하시는대로만 순종하고 싶어요”



06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김용의 경건의 열방에 불을 붙여 주소서!

08 종합 | 부즈 인 아트 보이지 않는 전쟁의 끝에는 어린양의 승리가 있다

세계

박원순 서울시장, 동성애 옹호 서울시 자치헌장 제정 추진

제9조(정보기본권 및 정보격차해소) ① 시민은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정보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에 대한 정보를 관리·통제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시는 시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특히, 정보소의 계층에 대한 정보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차별금지) 모든 시민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존중받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민국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장애인의 권리) ① 장애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며 모든 분야의 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는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을 수립·집행할 때에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

▶ 서울시가 20일 시민들에게 처음 공개한 「서울시 자치헌장 조례안」에는 동성애 옹호 및 조장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례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반대여론이 높은 동성애 옹호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자치헌장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20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통해 이같은 '자치헌장 조례안'을 공개했다. 박 시장의 입법 발의로 추진되고

있는 이 조례는 동성애 옹호조항이 포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10조)고 규정, 동성애 옹호 및 조장활동을 펼칠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2011년 법 제정 당시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

되지 않은 용어인 '성적지향'을 삽입, 묵시적 기망방법으로 국회의원과 국민을 속이고 제정된 부도덕한 법률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

이같은 상황에 서울시가 동성애 옹호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할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움직임으로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 6의 폐기와 차별금지법 제정 주장이 자연스럽게 힘을 얻게 될 수 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이기수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촉박하게 서둘러 제정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GNPNEWS]

한국

반기독교 법안인 '증오범죄통계법' 철회돼

최근 일부 정치인들이 인권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반기독교적인 법안들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던 '증오범죄통계법'이 교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22일 철회되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이 법안은 성별, 종교, 인종 또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등을 이유로 개인적 증오를 표현하는 것을 국가 차원의 조사와 분석을 통해 범죄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전도를 할 때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면 범

죄행위가 될 수 있다. 이 법안이 발의되자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와 소셜미디어 등에서 입법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이종걸 의원은 "발의한 의원의 사무실 등에 항의 전화가 너무 많이 걸려와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GNPNEWS]

한국

헤브론선교대학 2017년도 신입생 모집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경건한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는 헤브론선교대학이 2017년도 3월 개교를 앞두고 신입생을 모집한다. 총 8학기 운영될 이 대학의 학사 일정은 2년 간의 영성과정과 마친 이후, 전공을 결정해 2년간 단과대학에 위탁해 진행된다. 초기 2년 과정은 1학기의 기초영성과정과 1년간의 복음, 성경신학과과정과 6개월간의 선교현장 과정으로 이

뤄진다. 단, 3년 과정의 교육선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대학은 2017년 1학기부터 전공과정이 바로 시작되며, 수업은 영어로 진행된다. 학사 운영은 1주에 3박 4일간 학습으로 이뤄진다. 모집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로 선교적 삶에 대한 부르심이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 인정 대상자들이다.

입학설명회는 2017년 1월 10일(화) 오전 10시, 충남 서산 헤브론센터에서 열린다. 문의 ☎ 010-2900-1737 이메일: hufm@hanmail.net [GNPNEWS]



▶ 헤브론선교대학 신축건물 전경

2017년 1월 히브리어 인텐시브 스쿨

성경언어훈련학교(이하 BLTS)는 다섯번째 히브리어 인텐시브 스쿨(Hebrew Intensive School, 이하 SHIS)을 1월 16일 오후 2시부

터 서울 새순교회에서 실시한다. 성경언어와 원문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16만원(숙식 포함), 11만원(비

숙박, 점심포함)이다. 문의 및 접수 ☎ 070-4803-9078, 010-6613-7647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12.9 ~ 12.22)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인도네시아 아체 6.4 강진, 최소 97명 사망

인도네시아 서부 아체 주에서 7일(현지시간) 발생한 규모 6.4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97명까지 늘었다고 인도네시아 재난관리청(AATA)의 말을 인용해 디피에이(dpa)통신이 보도했다.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라고 부르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며 크고 작은 지진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진으로 인하여 사상자가 난 인도네시아와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재림의 그 날 이전에 발생하는 자연 재해가 주님 다시 오시는 전조임을 기억하고,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을 대면하는 때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미국 지난 해 헤로인 사망자 수, 총기 사망자 추월...사상 최초

헤로인 중독으로 사망한 사람이 총기 살인 피해자보다 더 많은 수를 기록했다고 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지난해 헤로인 중독으로 사망한 사람은 2014년에 비해 2000명이 증가해 1만2989명을 기록했다. 이는 사상 최초로 같은 기간 총기 살인사건 피해자 수(1만2979명)를 넘어선 수치이다.

자신의 쾌락과 정욕을 위해 생명을 지불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미국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에 근본적인 대답을 하나도 찾지 못한 채 어둠속을 방황하는 이들을 기억하여주시고, 모든 문제에 완전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걸고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국 옥스퍼드대 학생회, 'he·she' 대신하는 'ze' 거부

영국 옥스퍼드대학교가 공공시설에서 성(性)중립성을 나타내는 단어 'ze'를 쓰자고 권유한 데 대해 학생회가 반대사를 표명했다고 최근 가디언이 보도했다. 옥스퍼드대학교 학생회(The Oxford University's Student Union)는 웹사이트 성명서를 통해 'he'(그)나 'she'(그녀)를 사용하지 말라는 움직임이 '완전히 비생산적'이라고 밝혔다.

깊은 지성을 연구하는 대학이 십자가의 절대 진리를 떠나면,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것들을 답습하게 되는지 보게 됩니다. 학생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진리를 위하여 더욱 달려가는 대학으로 회복시키소서.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7년 1월 1주~1월 2주

1월 1주(1.2~1.7)

- ▶광주 북구 / 십자가사랑교회 (김**) 010-6280-4419
-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 (전**) 010-5337-2771

1.2~3, 5~6(10시~12시)

-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 010-8432-3698

1.2~6(14시~19시)

-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 010-4510-1070

1.4(0시~24시)

- ▶경기 수원 / 진흥교회 (남**) 010-8268-6879

1.6(08시~20시)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 010-4128-0448

1.6~7(07시~19시)

- ▶전북 전주 / 전주은혜샘교회 (정**) 010-4272-9905

1.7(06시~18시)

- ▶서울 관악구 / 신림감리교회 (배병군) 02-853-9191

1월 2주(1.9~1.14)

- 1.9~10, 12~13(10시~12시)
-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 010-8432-3698

1.9~13(19시~24시)

- ▶전남 광주 / 십자가복음교회 (김**) 010-9883-2347

1.13(08시~20시)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 010-4128-0448

1.9~14(09시~22시)

- ▶전주 완산 / 전주남공동교회 (우**) 010-3649-1409

기도참여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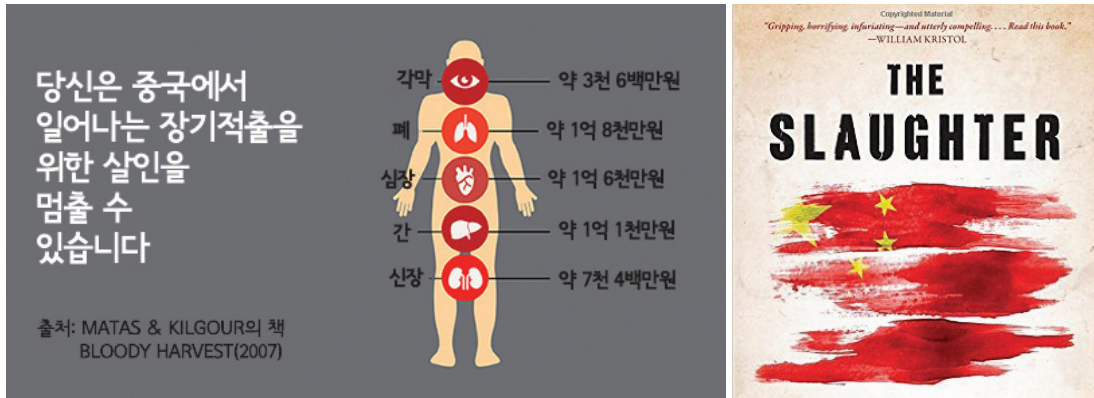
기도24-365본부 느헤미야52팀 ☎ 070-4803-9026~7, 010-4192-4365) www.prayer24365.org





중국 기독교인, 장기적출의 희생자로 전락하고 있나?

오픈도어, “극소수 기독교인이 피해자일 수는 있을 것”



▶ 실제 중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장기거래 비용(좌)과 중국의 박해감시 담당자 에단 구트만이 장기거래에 대해 쓴 책 학살(SLAUGHTER).

중국의 가정교회 기독교인들이 중국정부에 의해 장기적출의 희생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크리스천헤드라인닷컴이 최근 보도했다.

기독교인 박해감시기구인 월드워치모니터(WWM)에 따르면, 가정교회 기독교인들이 중국정부에 의해 ‘소모 가능하다.’고 여겨지며 ‘장기적출 대상자’가 되고 있다.

중국의 박해감시를 담당하는 에단 구트만은 중국 정부가 관리하는 장기 이식이 1만 건인데 반해 실제로 행해지는 장기 이식은 연간 약 10만 건에 달한다고 자신이 집필한 두 권의 책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같은 자료를 통해 장기적

출 대상자는 대부분 과문공 수련생들로 이뤄지지만, 티벳족과 위구르족, 그리고 기독교인과 같은 ‘소모 가능한’ 소수 시민들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30일 영국 의회에서 ‘중국의 가장 어두운 순간: 시진핑 주석 정권의 인권 탄압’이라는 주제의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에서 구트만은 연사로 나서 일부 국가에서 자국민의 중국 내 장기이식수술을 금지했지만 몇몇 서구권 국가들에서 중국으로 오는 소위 ‘장기이식 여행객’의 현실을 지적했다. 영국의 국가보안서비스에 의해 중국 시안(西安)에 위치한 병원에서 장기를 이식받은 한 영국인

남성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이자 보수당 인권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피오나 브루스 의원은 청중에게 “영국에서 장기이식 여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픈도어 관계자는 “지난 수십 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기독교인이 장기 적출의 주요 대상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중국 내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5% 이상을 차지하게 된 것을 고려할 때, 일부 기독교인이 이러한 비극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단체도 종종 범죄조직에 의해 행해지는 장기적출에

대해 듣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고, 가해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중국의 장기기부 및 장기이식 위원회 의장은 “현재 장기기부가 100% 자발적 기부들이며 정부는 장기 적출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인권,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30일 행사에서 인권위원회 부의장인 베네딕트 로저스는 “지난 24년간 중국을 지켜보면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인권이 악화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최근 3년간의 인권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 “언제나 인권이 취약한 나라였다.”고 묘사했다. 경제성장과 국제화를 통해 인권이 나아질 것이라 희망도 많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로저스 부의장은 “중국의 인권은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심각하게 퇴보했으며, 오히려 지금이 가장 어두운 암흑기”라고 표현했다.

한편 행사 전날인 11월 29일 ‘테러 행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오랫동안 수감 중이던 기독교인 정

치범 핑밍이 교도소에서 사망했다. 또 기독교인 인권 변호 활동으로 유명한 변호사인 지안 티안용은 지난해 11월 21일 이후 실종 상태다. 이러한 예를 통해 로저스 부의장은 중국 정부가 최근 수정한 종교 규제 정책을 “종교에 대한 억압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진핑 주석 이후 야만인들이 통치하고 있다.”며 “중국인들을 위해 나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로저스 부의장은 중국에서 구금된 홍콩의 한 출판인의 딸로 영국에서 살고 있는 안젤라 구이의 진술을 청중에게 읽어 주며 자신의 발표를 마쳤다.

“저는 불의에 대항해 말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어서 행운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대신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에 본부를 둔 웹사이트 차이나체인지(ChinaChange.org)의 창립자이자 에디터인 야쑤에 카오도 화상 연결로 참가했다. 야쑤에는 청중들에게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래로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억압되는 한편 ‘외국정부가 중국 내 문화혁명을 선동한다.’는 선전은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GNPNEWS]

미국 영화 배급사 “낙태 실상 파헤친 영화 상영 거부”

3만 명 기부로 만들어진 낙태전문가 전기영화, 2017년 중 독자 상영 계획

최근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낙태를 일삼던 낙태전문가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제작됐으나, 영화 배급사들에 의해 극장 상영이 거부됐다.

미국 온라인 미디어 라이프사이트뉴스는 최근 불법 낙태전문가 커밋 가스넬의 일생을 담은 전기 영화가 영화배급사들의 상영거부로 독자적인 상영관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불법적으로 낙태수술을 일삼았던 커밋 가스넬은 수많은 태아를 낙태시키며 ‘낙태주의자’라고 불리기도 했다.

제작 당시부터 화제를 모았던 이 영화는 2013년 1급 살인혐의로 기소돼 종신형을 선고받은 가스넬의 낙태수술에 관한 것을 담았다. 가스넬의 법정 진술과 인터뷰 등을 통해 정리된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온라인 기부를 통해 220만 달러(약 25억 원)가 모금돼, 영화로 제작됐다. 영화제작자인 필립 맥리어, 앤 맥

엘리니 부부는 영상을 통해 가스넬의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 행위인지를 밝히면서도 13세 이상 관람할 수 있도록 생생한 장면이나 법정증언을 많이 삭제했다. 그러나 배급사 관계자들은 이 영화에 대해 정치적으로 잘못된 기록물이라며 상영을 거부하고 있다.

맥 엘리니는 이 사건이 재판과정에서도 철저하게 언론사들에 의해 외면을 받았다고 밝혔다. 엘리니는 “언론사들이 가스넬의 재판 보도를 기피한 것은 사실상 낙태의 실상을 은폐한 것이며, 언론사들이 낙태에 관해 답변이 곤란한 질문을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후원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우리는 몇 개월 동안 이 영화를 할리우드에 있는 모든 영화 배급사들에게 보여 주었으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 영화를 배급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맥리어는 하지만 “가스넬의 범죄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범죄활동이며, 책과 영화를 통해 진실이 알려지게 될 것”이라며 “2017년 중 독자적으로 영화를 상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스넬 사건을 담당했던 대배심원들은 가스넬의 낙태수술 시설은 ‘공포의 집’이었으며,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자격이 없는 고용인들이 낙태를 도왔다고 말했다. 낙태된 아기들은 유리병과 냉동실에 보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넬은 2013년에 1등급 살인자로 기소되었고, 법정 자료에 따르면 낙태를 한 아기 가운데 3명은 살아 있었고 그들의 척추가 목에서 잘린 상태였다. 가스넬은 집행유예 가능성이 없는 두 배의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이 영화의 가스넬 역에 얼 빌링스가, 텔레비전 시리즈 <로이스와 클라크>에서 슈퍼맨 역할을 했던 딘 케인이 사설탐정 제임스 우드 역할



▶ 커밋 가스넬의 범죄를 담은 영화 관련사진과 영화제작자인 왼쪽부터 맥달리나, 필립 맥리어, 앤 맥엘리니의 모습.

을 맡았다. 시나리오는 트루 크라임(True Crime)의 저자 앤드류 클라번이, 미국 FX사(社)의 드라마 <저스

티파이드, Justified>의 닉 세어시가 감독을 맡았다. [GNPNEWS] 번역. 복음기도신문 국제팀

기획 | 파키스탄 선교 역사(1)

19세기초, 개신교 선교사들이 파키스탄에 입국 시작

무슬림이 95% 이상을 차지하는 파키스탄의 기독교 역사는 많이 알려진 바가 없다. 현재 파키스탄의 기독교 인구는 3% 미만이다. 19세기 후반 불가촉천민 계급 '추흐라'를 통해 집단개종운동이 시작된 배경과 이후의 역사를 파키스탄에서 사역한 지 30년을 맞는 영국의 프리다 캐리 선교사(Church Mission Society 소속)가 정리한 자료를 번역, 소개한다. <편집자>

1875년까지의 기독교 역사

1세기, 사도 도마를 통해 인도에까지 기독교가 전파되었다는 이야기는 익히 알려져 있다. 지금도 남인도에는 도마의 사역과 순교에 대한 전통과 증거들이 분명하게 남아 있다. 그러나 또한, 그가 곤도파레스 왕조의 인도-파르티아 왕국 시절의 수도였던 탁실라(Taxila, 인도 북서쪽의 고대도시)를 방문했다는 몇몇 증거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때 기독교 공동체가 생겼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은 없다.

16세기 후반, 예수회는 무굴 왕국(오늘날의 인도 북부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 이르는 지역을 지배한 이슬람 왕조)에 지속적으



▶ 예수회 선교사를 만나고 있는 악바르 대제의 모습, 1605년 나르싱 그림(좌). 파키스탄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제공: 백우현 선교사)

로 선교사를 보냈다. 약 50년 동안(1579~1628), 예수회의 활동에 비교적 관대했던 악바르 황제와 그의 아들 자한기르 황제의 허락 하에 포르투갈령 고아(Goa, 현재 인도 남서 해안 지역)에서 온 수사들은 무굴제국의 조정(朝廷)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들은 라호르(Lahore, 파키스탄 펀자브 지방의 중요도시, 무굴제국시대 황족의 거처)와 아그라(Agra, 인도 로디 왕조와 무굴제국의 수도, 현재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서부에 있

는 도시)에 교회를 지었고, 귀족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도 열었다. 현지 회심자들의 수는 적었는데, 그들 중 몇몇은 안전상의 이유로 고아 지역으로 가서 재정착을 해야만 했다. 1860년에 설립된 전교 카르멜 수녀회도 신드(Sindh), 타따(Thatta), 그 외 다른 두 도시에서 사역을 했다. 이후, 자한기르 황제의 손자인 아우랑제브 왕은 무굴제국을 더욱 전통적인 이슬람주의 국가로 만들었고, 기독교 활동 또한 그의 시대에 막을 내렸다.



개신교 선교사들, 19세기에 활동 개시

따라서 19세기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오늘날 파키스탄 국경 내에 남아 있던 기독교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개신교 선교 사역은 1706년 남인도에서부터 시작되었으나, 1833년 이전까지 영국 동인도회사는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사역에 대해 의심과 적대감을 가졌다. 동인도회사는 이들 선교사들의 활동이 자신

의 지배 아래 있던 지역의 무역을 방해하지 않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833년 무렵 영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동인도회사의 정관 개정시, 선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로 인해 1834년 다른 나라의 선교사들이 인도로 들어왔다. 미국장로교(American Presbyterian 이하 AP)선교회가 펀자브(Punjab, 인도 북부와 파키스탄 중북부에 걸친 광대한 지방)지역에, 존 로리가 루디아나(Ludhiana, 인도 북서부 펀자브주에 있는 도시)에 와서 사역을 시작했다. 신드와 펀자브 지역의 영국 합병 이후 여러 도시에서 새로운 선교 기지들이 빠르게 생겨나기 시작했다. AP선교회의 존 뉴턴과 찰스 포먼은 1849년 라호르에 정착하여 지금 파키스탄으로 불리는 지역의 첫 번째 선교 기지를 설립했다.

여느 선교지와 마찬가지로 선교사들은 초기에 상류층을 대상으로 한 사역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도시에 살며 더 많이 교육받은 높은 카스트에 속한 힌두, 시크와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계속> [GNPNEWS]



선교 통신

“이곳에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주 안에서 모두들 평안하십니까? 저희는 이곳 선교지에서 자매 선교사 세 명이 함께 공동체로 살고 있습니다. 매순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그만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십니다.

저희의 하루는 새벽 5시 기상을 시작으로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24·365와 말씀묵상과 나눔과 기도를 한 다음 아침 식사를 합니다. 이후 여러 가지 일정들을 가지는데, 그러한 일정 중에도 방 하나를 기도하는 자리로 정해놓고 늘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독대하며 세계복음화를 향한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하신 일이 무수히 많지만 무엇보다도 나누고 싶은 것은 함께 연합하여 기도의 성벽을 쌓아가는 일입니다. 먼저 현지에 있는 한 가정과 함께



말씀 한 장씩을 묵상하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임과 열방의 긴급한 소식들로 기도하는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인교회와 연합하여 한 주 동안 박해받는 교회와 디아스포라 등 기도정보를 가지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느낌에52기도와 경건의 열망 기도정보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는 기쁨으로 거두리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리라”(시 126:5-6)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이 땅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기도의 씨앗을 심게 하십니다. 조선에 많은 꽃을 피우기 위해 자신이 씨앗이 되어 자기 심장을 조선에 묻었던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기

“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이 땅에서 주님은 기도의 씨앗을 심게 하십니다. 기도의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우리도 그 씨앗을 날마다 뿌리며 달려갑니다
”

도가 훗날 주님의 때에 이루어졌던 것과 같이 기도의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도 그 씨앗을 뿌리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 늘 기도를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항상 기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많은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믿음의 삶이 저절로 살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희에게 더욱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캠프가 준비 중입니다. 처음에는 막연히 꿈만 꾸고 있었던 이 땅의 다음세대의 회복을 이제는 눈앞에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의 수준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마치 불과 같아 보입니다. 그러하기에 저희 공동체 안에서도 더욱 소망이 됩니다. 더욱 주님이 이 땅의 다음세대를 세워 주시길! 이 땅의 영혼들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 이 세대에 주님의 얼굴을 함께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이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 [GNPNEWS]

L국 Y, J, S 선교사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인도하시는대로만 순종하고 싶어요”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한 이명진 목사

성경을 사랑하여 열정적으로 공부 하였던 이명진 목사(44). 해박한 성경 지식으로 가르치기는 했으나 자신의 의가 십자가에서 박살이 난 후 모든 사역을 내려놓았다. 자신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시간표 대로 한 걸음씩 걸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명진 목사를 만났다.

- 어린시절 삶을 나눠주세요.

“두 번이나 유산을 하시고 어려움을 겪으셨던 부모님은 모태에 있을 때 저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부모님의 신앙은 남다르셨어요. 어렸을 때 살던 집을 팔아 건축현금으로 드리고 저희는 산동네로 이사했어요. 물도 전기도 나오지 않는 판자촌에서 6학년 때까지 살았어요. 그곳이 재개발로 철거되면서 보상으로 나온 아파트 입주권을 팔아 당시 교회를 개척하시는 강도사님께 다시 현금하고 저희는 다른 판자촌으로 이사하게 됐어요. 그곳에서 부모님이 지금까지 살고 계세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산에서 기도를 한 덕분에 산기도와 신학생이었고, 신학대학원 시절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 성경공부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청년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을 알아간다는 차원에서 1년간은 함께 신나게 놀았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청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뜻밖에 성경을 알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려고 보니 정작 제가 아는 것이 없더군요. 친구와 통화하면서 성경사역 하는 곳을 추천받았어요. 독방에 들어가 인터넷으로 공개된 동영상도 녹취,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해하기 쉽게 사진을 첨부하고 워드로 작성하여 책을 만들고, 청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부교역자 시절이었는데 새벽 2시까지 강의를 준비하고 4시에 기상해서 새벽예배 차량운행을 섬겼어요. 1년간 그렇게 성경에 몰입했어요.”

- 열정이 대단하셨네요.

“혼자 공부하는 것은 부족한 것 같아 성경사역원에서 전문강사 과정을 6개월 동안 배우다가 아예 사역원에 들어갔어요. 전문 강사 후보들을 위한 교재편찬을 도우며 강의를 반복해서 듣다 보니 성경 전체를 보는 안목이 생겼어요. 그러나 어떤 일을 계기로 섬기던 것을 그만두고 나오게 됐는데 그 길



로 계속 갔으면 저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그 때는 명함 한 장만 내밀어도 다 알아주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그 일을 그만두게 하신 게 참 감사하죠.”

만족되지 않아 공부에 더 몰두

- 주님의 은혜였네요.

“네. 이후 교회 사역을 다시 했지만 성경강의는 계속했어요. 성경에 대한 총체적인 안목이 생겼지만 만족이 안됐어요.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목회를 하면서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공부를 더 하게 됐어요. 세미나에 참여하기 위한 상당한 재정을 주님이 공급해 주셨고, 그토록 가고 싶었던 성지순례도 주님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버리고 준 비하셔던 성지순례였는데, 기도하던 중에 ‘너 말고 이명진 목사 보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주일 내내 씨름하셨대요. 결국 믿음으로 저에게 티켓을 건네셨고, 덕분에 남들이 잘 안가는 고급 코스를 공짜로 다녀오는 은혜를 입었어요. 감사하게도 저만의 성경강의 자료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 주님이 막 밀어주셨네요.

“그렇죠. 늘 성경을 더 알고 싶은 갈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독이 되었던 것은 교만이었어요. 성경을 볼 때마다 배경지식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그려졌어요. 아내는 저에게 항상 “당신은 성경에만 너무 빠져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어요. 하지만 뭐가 문제인지 몰랐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님보다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러다가 양평 시골교회로 청빙되어 담임목회를 하게 됐어요. 신앙 외의 부분에서 아내와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신앙에 관한 부분이

였어요. 성도들이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고 결론을 내린 저는 금요 십야예배 때마다 복음을 가르쳤어요. 여러 책들과 아내의 복음 정리 노트를 참고하면서 체계적으로 복음을 가르쳤어요. 마치고 나면 아내에게 어땠냐고 꼭 물었어요. 잘했는데 핵심이 빠졌다는 거예요. 교리와 신학적으로 잘 설명은 됐지만 복음은 이해시킨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맞는 말이지만 자존심이 상했죠. 답답했어요. 여러 차례 반복되는 싸움 끝에 내가 직접 그 복음훈련에 참여해 복음을 잘 정리해 오겠다고 결심했어요.”

- 도움이 되는 훈련이었나요?

“일주일 내내 허리를 꼴딱하게 세우고 고정자세로 눈을 부릅뜨고 강의내용을 경청했어요. 처음에는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려는 나쁜 의도로 시작했지만 십자가에 관한 내용이 선포되는 순간 제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뒤집혔어요. 제가 그동안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다는 것, 정확하게 사탄에게 속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놀지도 않고 공부와 사역에만 전념하며 사역의 열매도 있었고 이십 대 초반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건은 목숨이 날아가는 상황에서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인데, 제가 이런 상태라는 것이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나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 저를 강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 내가 사탄에게 분명히 속았다는 것이 말씀 앞에서 한순간에 인정됐어요.”

- 진리의 빛이 어둠을 몰아낸 순간이군요.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누웠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것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 막 울었어요. 제 마음에 날아갈 듯한 기쁨과 함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주님과과는 무관하게 내 열심으로 성도들을 판단했어요. 시골 사람들이라 역시 안 된다는 생각과 이곳에서 빨리 벗어나 도시교회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으면서 성도들에게는 반대로 말했어요. 그날 저는 이런 가식적인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았음을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 정말 복음의 능력이군요. 이후의

삶이 궁금하네요.

“훈련을 마치고 돌아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주일간 꼬박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만 했어요. 훈련을 받으며 들었던 ‘주님이 하신다’는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실제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나를 위한 십자가 사랑에 감격

-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나요?

“복음의 내용으로 설교를 계속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아내의 권유로 가족이 함께 다음세대를 위한 말씀기도 수련회에 갔어요. 그룹을 지어 여럿이 말씀 한 장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묵상한 말씀을 나누는데, 저의 첫 반응은 ‘성경을 뭐 이딴 식으로 해석 하는가.’였어요. 저는 성경 지리, 역사, 배경, 문화 등 자동으로 지도가 펼쳐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곧이어 몇몇 선교사님들의 기도 내용을 듣고 뭔가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배경지식은 하나도 없는데 자신을 깨뜨리고 말씀 앞에서는 그분들에게 도전을 받기 시작했어요. 감사한 것은 저도 목사라는 타이틀을 던져버리고 정직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를 인정하며 나아갔더니 기도가 순식간에 바뀌며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기도의 맛을 본거죠. 너무 행복했어요.”

- 말씀기도의 맛이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요?

“그 모임 마지막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다니엘의 꿈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의 꿈을 주신다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러나 제겐 그냥 들리지 않았죠. 다음날 아침부터 아이들과 함께 말씀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주시길 구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2시간 반씩 기도했어요. 어느새 아이들의 기도가 바뀌었고 부여주시는 은혜도 엄청났어요. 아이들이 훈련받는 것을 그렇게 반대했던 제가 그 훈련의 섬김이로 지원하게 됐고 팀장이 되어 싱가포르로 아웃리치도 다녀왔어요. 그뿐 아니예요.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는 ‘캠퍼스를 위한 기도모임’을 매주 사모함으로 다녀요. 마치면 한 시간을 달려와 잠깐 자고 새벽예배를 인도했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완성이 어느덧 저의 소망이 되어 가슴에 꽂혔어요.”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소망의 복음(7·끝)

경건의 열망에 불을 붙여 주소서!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어 올렸다. 목마르던 영혼들의 심령에 불이 붙어 타올랐고 세계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다. 하지만 100여 년이 지나자 위대한 종교개혁의 역사도 복음에서 떠나 다시 형편없는 모습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양심이 마비된 채 탈선하는 성직자들,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져버린 평신도들, 실천적인 경건을 잃어버리고 어느덧 이신칭의(以信稱義)의 교리만 붙든 채 냉랭한 모양만 남은 교회, 스콜라 신학을 모방하며 신학 논쟁만 일삼는 신학교의 모습은 마치 머리 깎인 삼손의 모습과 같았다.

바로 그 때 루터파에 속해 있던 슈페너가 1675년에 교회 개혁 프로그램을 담은 '경건의 열망'이라는 책을 통해 정치 지도자들과 권

력층, 목회자, 일반 성도들 안에 있는 개신교의 내적 부패를 지적했다. 교회 부패의 원인을 신앙의 결핍이라고 보았던 그는 그 책에서 6가지 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이른바 '제 2의 종교개혁'이라고 불리는 '경건주의 운동'이 촉발되어 교회는 다시 일어났다.

종교개혁의 불씨가 사라지기도 전에 이미 타락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근심스런 탄식이 교회를 덮어올 때, 경건의 열망을 가졌던 소수의 사람들은 그냥 있을 수 없었다. 종교화 되고 화석화 된 교회 안에서 적지 않은 무리들이 일어났고, 결국 응집된 경건의 열망은 꽃이 피었다. 경건주의의 본산이 된 독일의 할레대학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되었다. 지금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

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듯 경건주의 운동은 '실제' 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개혁이란 언제나 본래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개혁이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렇다면 세계기독교회 역사 속에서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특별한 영광을 누렸던 한국교회는 어떠한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흥을 경험했고, 불과 한 세기만에 천만 성도의 규모로 확장되었고, 일제 36년, 6·25전쟁과 같은 고난을 경험했고, 전후(戰後) 잿더미 위에서 이른바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경제 번영을 누렸고, 게다가 선교의 열정이 남달라서 3만여 명의 선교사들을 전 세계 180여 개국에 파송한 세계 2위의 선교사 파송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 거대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거룩한 영혼을 가졌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저 바벨론의 웅장함과 화려함으로 채색한 종교의 냄새가 슬슬 풍긴다. 영혼 없는 신학교리, 생명을 떠난 외식, 감격 없는 예배, 무감각한 영성, 경외함 없는 성직, 이익에만 혈안이 된 장사치들이 판을 치는 성전, 2천 년 전 예수님이 그토록 분노하시던 예루살렘의 망령이 스멀스멀 꿈틀거리는 조국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지금 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경건의 열망에 불을 붙이시는 것이다! 결코 물러서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경건의 열망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다 죽어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소서. 예수 닮게 하소서. 이 세대에 그 날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2016.2 메시지 정리) <끝>

[GNPNEWS]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

헤브론선교대학 2017년 신입생 모집공고

십자가 복음을
생명으로 만난 사람만이
참된 용기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오라! 와서 배우라!
그리고 열방 향해 나아가라!
헤브론선교대학에서 만나자!

1. 모집 대상

-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 선교적 삶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 인정 대상자 (단, 예외 상황일 경우 상담 가능)

2. 원서교부

- 입학원서는 입학설명회 당일 현장에서 교부(입학원서 전형료 7만원)
- 원서 접수 기간: (2017년 1월 11일(수) ~ 2017년 1월 18일(수) 소인까지)
- 해외 거주자는 별도로 문의

3. 입학설명회

- 일시: 2017년 1월 10일(화) 오전 10시~오후 1시,
- 장소: 헤브론선교대학 교사
- 입학설명회 참가 접수 기간: 2016년 12월 26일(월) ~ 2017년 1월 4일(수)
- 참가신청은 이메일(hufm@hanmail.net)로 접수할 것

4. 입학전형 일정

- 1차 서류심사(1차 합격자 발표 2017년 1월 26일)
- 2차 면접(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면접일시: 2017년 2월 2일(목) ~ 8일(수)
- 2017년 2월 11일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년 3월 7일(화) 개교 및 입학식

5. 학제 및 교육방식

영성과정		전공과정	
1학기	5대 가치에 기초한 영성과정	5학기	전공을 결정하여 각 단과대학에 위탁하여 진행한다.
2학기	복음교과과정	6학기	
3학기	성경신학과정	7학기	
4학기	선교현장 과정	8학기	

6. 전공 선택에 관하여

- 헤브론선교대학에 입학하는 자는 전공을 미리 선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년 영성과정을 마치면서 전공을 선택한다.
* 교육대학의 경우 입학전형 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당일 입학설명회에서 상세히 설명함

7. 학교생활에 관하여

- 헤브론선교대학은 일주일에 3박4일 합숙으로 진행된다.
- 매 학기마다 방학을 이용하여 현장 아웃리치를 진행한다.

8. 문의 및 접수처

010-2900-1737 / hufm@hanmail.net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헤브론선교대학

Interview

<5면에 이어>

“주님만 바라보고 교회를 사임했다”

- 하나님의 열망이 부여됐군요. “한번은 복음훈련에 다시 한번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요일 4:13)라는 말씀과 함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해주시겠다.’며 기대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첫 날부터 ‘너 교회 사임하고 나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교회에서 나가면 저갈 데도 없고 돈도 없어요. 오히려 빛이 있어요.’ 주님과 오히려 실랑이 끝에 결국 결단하게 됐어요. ‘좋아요. 그럼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사임하겠습니다.’ 사인을 주시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순종하겠다고 응답하고 돌아와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반겼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인만 구했어요.”

- 사인을 받으셨나요?

“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난 후였어요. 4개월 동안 장로님들이 제가 다녀온 훈련과정에 참여하시고 권사님들도이 복음으로 세워졌어요. 이제 복음으로 달려갈 일만 남았다고 이야기하곤 했어요. 그러나 복음 좀 그만 얘기하시라고 계속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교회 떠나겠다는 분들도

계셨죠. 저는 계속 사인을 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지금’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어젯밤 잠이 오지 않아 밖에 나가 하늘을 보며 기도하는데 목사님의 앞길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는 마음을 주셔서 축복기도했다고 참 이상하다며 나눠주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주님이 하신 이야기를 나누고 권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리고 사임했어요.”

- 부모님의 반대는 없으셨어요?

“어머니께서도 선교훈련을 받으셨는데, 이전의 어머니는 극단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말씀하시곤 했는데 선교훈련을 받고 나서는 “이제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는냐.”고 반문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나서는 이제 전폭적인 지원자가 되셨어요.”

-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GNPNEWS]

S.A.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임을 깨닫자 은혜가 임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자란 저는 매우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처음 성인영화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음란한 영화나 영상을 보지 않겠다고 다짐 했으나 그 잔상은 저를 계속 괴롭혔으며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선교사의 길을 가고 싶어서 기독교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학교에서 찬양 인도자로 사역하며 거룩한 삶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음란의 욕구는 제 안에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잠깐씩 교제하던 형제들과 행위로 죄의 열매는 맺지 않았어도 생각으로 수없이 죄를 지었고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관계들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나의 모든 모습을 사랑해주는 현재의 남편을 만났고 결혼을 결심한 순간, 제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억눌렀던 죄의 본성에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던 저는 점점 하나님의 시선을 회피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딸이기에 교회는 다니며 어쩔 수 없이 찬양 사역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적인 생활을 지속하다가 다시 회개하고 남편과 결혼함으로 이 추악한 옛 자아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 혼전 관계에 대해 거짓말했고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며 거룩한 척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 나의 더러운 옛 자아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는다면 죄는 꼬리를 물고 따라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개와 함께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어느 날, 낙태가 죄라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 너무 원하던 생명을 뱃속에서 잃었던 나는 나의 과거도 까마득히 잊고 그런 행위를 정죄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랫동안 완전히 잊었던 일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결혼 전 남편과 죄를 짓는 동안 생리가 끊어져 '나 이제 죽었구나!' 하며 하



나님께 절규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저 설마 임신한 거 아니죠? 저 목사 딸인데 낙태할 수 없어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잖아요. 임신이 아니라면 다시는 이 죄 짓지 않겠습니다.” 만약 임신이라면 부모님께 수련회 간다고 하고 수술을 받아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임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일을 떠오르게 하시며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한 자가 너다.” 그 음성을 들으며 십자가 앞에 완전히 엎드려졌습니다. 기회와 환경만 허락했다면 반드시 더 큰 죄를 저질렀을 나,

살인하고 음란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교만했던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주님, 저는 죽어 마땅한 존재군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서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곳에 있습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십자가 위에 있었습니다.

이제 더럽고 추악한 존재적 죄인 한새미는 2000년 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 전에 계획하셨던 아름답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원형 한새미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옷을 입고 먼저는 남편과 함께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거룩한 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교회에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사탄의 정죄의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삶을 누리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에 순종할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 에티오피아 아니면 안돼요. 제가 에티오피아 사랑하는거 아시죠?”라는 기도 뒤에 숨어있던 저의 자존심, 자아숭배, 욕심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저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북한이라도 좋고 시리아라도 좋습니다. 아니면 섬기는 교회 동네라도 좋습니다. 그곳이 죽음의 길, 생명의 길이라도 좋습니다. 주님이 애용해 하시는 곳에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GNPNEWS]

한새미



“아무것도 필요 없습네다. 거저 성경이면 충분합네다”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성경말씀이 그리워 탈북

“북조선에서 방금 강 건너 온 사람인데...” 연락을 받고 달려가 보니 물이 줄 줄 흐르는 옷은 찢겨져 있었고 몸은 상처투성이였다. 더군다나 40세가 넘었다고 하는 그는 몸도 불편한 사람이었다. 일꾼(중국에서 신분을 감추고 섬기는 자, 편집자 주)은 그를 집에 데려다 따뜻한 물에 목욕을 시키고 허기를 채우도록 서둘러 밥상을 차려 왔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어떻게 강을 건너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내래 2년 전에 여기 넘어와 솥 굽는 일을 했댔어요. 그때 같이 일하던 사람이 성경책을 주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북조선으로 갔는데 자꾸만 읽었던 성경말씀이 생각나서 견딜 수 없어 다시 넘어왔습네다.”

그의 말을 듣던 일꾼은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아~아! 이거이 그때 봤던 거야요.” 창세기를 펼쳐서 몇 줄을 읽던 그는 감격에 겨워 소리쳤다.

다음날 이 북한 형제와 성경공부를 함께 하기로 했다. 공부할 시작하기 전 그는 15일 정도 있다가 돌아가겠다고 미리 날을 정했다.

그는 정말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고 늘 질문이 그치지 않았다. 그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알기에 갈급해 있었다. 그러는 동안 약속했던 15일이 다가오자 “선생님, 내래 지금 가면 아니되겠습네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데 거저 시간이 조금 지체

되더라도 말씀을 확실하게 배워서 가야겠시오.”라고 하였다.

다시 북한으로

어느덧 한 달 반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 형제는 돌아가야겠다고 했다. “뭐가 필요하시지요?” “내래, 성경만 가져가고 싶습네다.” 이제 추운 겨울이 시작되었는데 옷을 좀 가져가라며 일꾼이 옷을 내놓았지만 받지 않았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네다. 거저 성경이면 충분합네다.” 그것을 바라보던 일꾼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북한 형제의 태도가 너무나 단호

했기에 말할 수도 없어 그가 성경을 가방에 챙겨 넣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다.

드디어 짐을 챙기고 미리 준비해 놓은 차에 일꾼과 함께 올라탔다. 11월의 싸늘한 날씨가 더욱 차갑게 느껴졌다. 곧 차에서 내린 그들은 조심스럽게 강변으로 내려갔다. 생각보다 차가운 바람이 온몸을 파고 들었다. 순간 일꾼은 걸음을 멈추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입고 있던 두꺼운 잠바와 바지를 벗어 북한 형제에게 건네주었다.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비장한 표정의 일꾼을 보고는 벗어준 옷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둘은 부동켜안고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소리 없는 눈물이 두 사람의 볼에 흘러내렸다.

10여 분을 기도한 후에 북한형제는 배낭을 열어 일꾼이 준 옷을 밑에 넣고 집에서 싸준 빵을 넣은 다음 성경책을 비닐봉지에 싸서 맨 위에 넣었다. 성경이 물에 젖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일꾼의 눈에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GNPNEWS]

<출처: 붉은 예수쟁이(문광서원)>



▶ (출처: 모퉁이돌선교회 캡처)



슬퍼하지 않을 이유

안 후스는 로마 교황청이 프랑스의 도시로 이전했던 ‘아비뇽 유수’가 끝나고 세 명의 교황들이 난립했던 ‘대분열’의 시기에 프라하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교수이며 목사였다. 그는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던 ‘자국어 설교’를 했으며 개혁 정신을 신학생들과 신자들에게 각인시켰다. 이후 프라하 대학교 학장이 되어 민족의 지도자로 부상했을 때 로마 가톨릭은 그를 못마땅해하며 ‘후스의 45가지 이단성 항목’을 종교회의에 회부시키고 출교 및 설교권을 박탈하였다. 6개월간 지하 감방에 감금당한 후스는 다음과 같이 신앙을 고백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슬퍼하지 않네. 하나님께서 후에 또 다른 사람들, 즉 적그리스도의 사악함을 나타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을 사람들을 일으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사실이 우리를 위로하리라 믿네. 아멘.” [GNPNEWS]

뷰즈인 아트
Views in Arts

피터 브뤼겔의 <베들레헴 영아 살해>

보이지 않는 전쟁의 끝에는 어린양의 승리가 있다

북유럽의 거장 피터 브뤼겔이 그린 <베들레헴 영아 살해>는 제목을 보지 않는다면 농촌 마을에 도착한 군대 정도로만 생각할 수도 있다. 많은 인물을 그리면서도 한 명 한 명의 동작, 표정, 옷차림 등의 묘사 역시 놓치지 않고 그리는 브뤼겔의 세밀한 화풍은 관람자들을 그림 가까이 다가가도록 한다. 특히 <베들레헴 영아 살해> 작품처럼 언뜻 보이는 장면과 제목이 연결되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다. 그림 소재인 영아 살해 사건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으로, 동방 박사에 의해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게 된 헤롯이 베들레헴의 두 살 이하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고 한 사건이다. 성경에는 이 참혹한 사건 역시 예레미야의 예언이라 기록되어 있었다. “라마에서 슬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마 2:18)

그런데 브뤼겔의 그림 속 배경과 인물은 고대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니다. 브뤼겔은 이 비극을 16세기

플랑드르의 풍경으로 바꾸었는데, 그림에서 붉은색 옷을 입고 말을 탄 사람들은 스페인 군인들이며, 중앙에 갑옷을 입고 서 있는 무리는 독일 용병대이다. 16세기 중반, 종교 개혁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스페인 왕 필립 2세는 용병까지 동원하여 플랑드르의 개신교도들을 무참히 학살하였고, 브뤼겔은 스페인의 만행을 성경 속 사건에 빗대어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로부터 10년 뒤, 브뤼겔의 작품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루돌프 2세의 소유가 되었고, 필립 2세의 조카였던 황제에게 이 그림은 숨기고 싶은 과거와 같았다. 결국 브뤼겔은 그림의 아기들 위에 덧칠을 해야만 했다. 이런 식으로 영아 학살에서 약탈 사건으로 바뀐 그림은 아버지의 작품을 복제 판매 하였던 브뤼겔의 아들에 의해 숨겨진 비밀이 전해질 수 있었다.

성탄절에 일어난 영아 살해사건, 그리고 종교개혁 시기에도 반복되었던 학살, 이처럼 거룩한 기점들에는 끔찍한 박해도 함께 도사리고 있었다. 그만큼 우리 눈에 보이



▶ 그림설명: 피터 브뤼겔, <영아 살해(Massacre of the Innocents)>, c. 1565-1567, Brukenthal National Museum 소장. 아버지 피터 브뤼겔이 그린 그림(좌)과 그의 아들 브뤼겔이 복원한 그림. 살해되는 아이들이 오리, 칠면조, 짐꾸러미로 덧칠되어 있는 것을 복원했다.

지 않는 영적 전쟁 또한 얼마나 치열했었고, 또 지금까지도 얼마나 치열한가를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전쟁 과정이 어떻게 간에 그 끝에는 어린양의 승리가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GNP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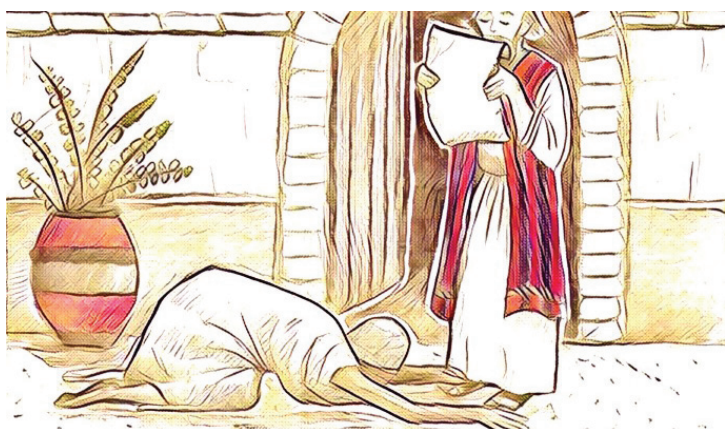
이상윤(미술 평론가)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은혜 받은 죄인, 게임중독자가 선교완성의 주자가 되다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10년 동안 게임중독자로 게임방을 전전하며 지냈다. 나이 서른이 되었을 때 사회 낙오자, 게임중독자로 앞날이 캄캄했다. 모태신앙이기에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기는 했지만 잠깐 뿐이었고 게임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나도 나를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으로 나를 만나주셨다.



복음을 만난 후 나의 삶은 뒤집어졌다. 교회조차 나가지 않던 신학생이었던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다. 게임중독자에서 1년 만에 선교사로 신분이 바뀐 것은 참으로 주님의 은혜였다. 이제 선교사로 나를 주님께 드린지 4년이 지났다. 적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내 안에 정리되지 않은 중요한 주제가 있었다. 그것은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었다.

‘나는 은혜 받은 죄인인가? 아니면 은혜 받은 의인인가?’ 복음은 나를 죄와는 상관없는 새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자신을 은혜 받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를 보게 되었다. 그는 주인인 빌레

몬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였다. 그는 로마로 도망갔지만 그곳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만났다. 그리고 그는 바울의 편지를 들고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아간다. 오네시모는 주인을 만나서 죽임을 당해도 아무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복음 안에서 용서를 받는다. 이 말씀을 보며 주님을 깨닫게 하셨다. 내가 입술로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지만 얼마나 죄인의 자리에 있는 것을 싫어하고, 의인으로 살려고 했는지 말이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은 후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했을까? “나는 은혜 받은 죽을 죄인입니다. 원래 죽어야 하는데 주인 빌레몬이 저를 살려주었습니다.”라고 고백했을 것이다. 반면 나

는 내가 진정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만 동의하고 그 복음을 수단으로 구원받으려 했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게임중독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선교사로, 선교사가 된 후에는 좀 더 관촬은 선교사로 살아가는 데 복음을 이용했음을 알게 됐다. 영원히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내 안에서 마침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받아내셨다. ‘주님, 나는 은혜 받은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듯 무지하고 교만한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는 내게 최근에 학개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셨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학 1:8)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재건을 목적으로 귀환한 백성들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는 성전을 완공하는 것이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효성아, 너의 부르심의 목적은 우주적 몸 된 교회인 성전을 완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다시 오시는 선교완성의 그 날을 완성하는 부르심으로 나를 불렀다고 말씀해 주셨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기도로 선교완성의 그 날을 강청하면 열방을 유업으로 내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현재 섬기고 있는 선교단체 안에서 주님은 경건의 열망과 함께 선교완성의 그 날을 향한 마지막 부흥을 허락해 주셨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것, 선교완성의 그날을 향해 복음과 기도로 자신의 전부를 드려 헌신하는 새벽이슬과 같은 청년들을 일으켜 세우셨고, 마지막 그 날을 완성하는 자로 달려가게 하신다. 그 자리에 은혜로 끼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더욱 복음과 기도로 우리 세대에 선교완성을 이루실 주님만 신뢰한다. [GNPNEWS]

정효성 선교사

구독신청 안내

아래의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해주세요.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 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 651001-01-343666
예금주 :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6. 12. 8 ~ 12. 21 (가나다 순)

개인

강은진 강종채 권해령 김경선 김민성 김사회 김선희 김수미 김승수 김영세 김인애 노옥희 안병윤 안은경 오현아 유자인 윤경석 이경희 이계원 이복길 이준진 임보람 임종태 장근혜 장영선 조상국 조성실 차인순 최선준 허금희

교회 및 단체

검단교회 그루터기교회 동명교회 마중물교회 순회선교단 순회선교단미주지부 웹 시흥교회 은혜신일교회 은혜의샘교회 전주은누리교회 주만교회 평안교회 하원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채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